

러시아혁명여행 모스크바 답사지

<p>크렘린</p>		<p>1917년 혁명은 독일연합군과 전쟁중에 일어났으므로 혁명정부의 첫번째 과제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1918년 3월 브레스트-넵토스크평화회담과 더불어 만약에 있을 사태에 대비해 항구도시인 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내륙에 위치한 모스크바로 전도를 단행한다. 이로부터 크렘린은 소련정치의 중심지가 되었다.</p>
<p>극동민족대회개막식장</p>		<p>크렘린 안에 위치한 스베르들로프 홀은 소련의 모든 중요국가회의가 개최된 곳이다. 우리역사와 관련해서는 1922년 극동민족대회의 개막식이 열린 곳으로 기억된다. 이 회의는 이르쿠츠크파의 후원자인 슈미야츠키가 주도한 회의였고 김구식, 여운형, 박헌영등이 참석했다. 스탈린은 이 대회를 통해 일본공산주의자들에게 공을 들였고, 일본공산당결성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p>
<p>레닌 영묘</p>		<p>레닌 사후엔 목조건물이었으나 붉은색 핀란드화강암으로 개축했다. 이 개축 시기에 레닌의 성인화가 이루어졌으며 레닌주의를 앞세운 권력투쟁의 절정기였다.</p>
<p>바실리성당</p>		<p>붉은광장을 대표하며 나아가 러시아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바실리성당. 그 앞의 미닌과 자포르스키동상은 현재 대러시아 애국주의를 상징하는 기념비로 재조명되고 있다.</p>
<p>맑스 상</p>		<p>볼쇼이극장을 마주한 광장에 구소련공산당원들이 자주 집회를 여는 맑스상이 있다. 맑스의 프롤레타리아트독재 테제는 레닌에 의해 소비에트독재가 아닌 당독재로, 스탈린에 의해 수령독재로 발전되었다. 스탈린은 당의 무오류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관료화, 소극성, 부패척결등 비판을 허용한다. 중국문화혁명기 당의 비판을 허용한 마오의 '조반유리'의 뿌리는 스탈린수령독재이다.</p>
<p>엔겔스 상</p>		<p>국가의 소멸에 대한 엔겔스의 테제는 스탈린시대 국가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 최대 논쟁거리였다. 주목할 사실은 스탈린이 국가소멸테제를 부정할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세계혁명테제와 더불어 국가소멸테제는 레닌의 계승자를 자처한 스탈린의 최종목적이었다. 정치논쟁의 핵심은 '현실성'이었고 정치투쟁의 균열선은 '혁명의 템포'였다.</p>
<p>쥬코프 장군상</p>		<p>1921년 크론슈타트반란을 진압한 뚜하첵스키장군의 1937년 반역시도 실패 후 임박한 2차대전을 지휘할 장군이 부재한 것처럼 보일 때 등장한 인물이 쥬코프이다. 할힌골(노몬한)전투에서 일본군은 쥬코프에게 제압당한 후 유라시아 북방진출 전략을 포기하고 남방전략인 대동아공영권으로 선회한다. 1945년 4월 베를린에 입성하고 카이텔원수로부터 항복문서를 받았다. 1945년 대조국전쟁의 최고영웅으로 붉은광장에서 스탈린을 대신해 사열을 받았다.</p>

극동민족대회 숙소 겸 회의장소		<p>러시아정교신학교 제3소비에트동. 크렘린에서 극동민족대회 개막식이 열린 뒤 실제 본회의가 진행된 곳은 크렘린 근처 구 러시아정교회 신학교 건물이었다. 전세계 참가자 중 상당수가 조선인혁명가들이었다. 김규식, 여운형, 박헌영등이 바로 이곳에서 먹고 자면서 날마다 회의를 진행했다. 폐막식은 쌍뜨 삐테르부르크로 옮겨 따브리다궁에서 이루어졌다.</p>
룩스호텔		<p>모스크바의 중심지인 트베르스카야에 위치한 룩스호텔은 혁명직후부터 해외혁명가들에게 제공된 숙소였다. 호치민,그람시,이극로,이동휘,조봉암등이 이 호텔에서 묵었다. 호치민은 이곳에 숙박하던 중 레닌의 장례식을 목격한다.</p>
근현대사박물관		<p>구 중앙혁명사박물관으로 일반서적등에서는 접할 수 없는 혁명자료가 가장 많이 전시된 곳이다. 근처에 혁명시인 마야코프스키동상이 있다.</p>
러시아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p>구 레닌연구소로 국가문서고중 가장 중요한 사회정치사문서를 보관하는 장소이다. 건물 앞에 레닌상이 있고 트베르스카야광장이 이어지며 그 맞은편에 모스크바시청이 있다.</p>
동방노력자공산대학 터		<p>일명 스탈린대학. 동방 혁명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공산대학으로 지금은 그 터에 다른 건물이 세워져 있다. 초기에 상해파의 박진순등이 강의했다. 박헌영, 주세죽, 김단야, 조봉암, 호치민등이 수강했다. 근처에 정부기관자인 이즈베스찌야 신문사와, 푸시킨광장이 있다.</p>
랭콤극장		<p>구 스베르들로프대학. 레닌사후인 1924년 4월초 스탈린은 이 대학에서 「레닌주의의 기초」를 강연하는데, 이는 레닌이즘과 드로즈끼즘 논쟁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승리는 스탈린의 것이었고, 「레닌주의의 기초」는 1913년 「마르크시즘과 민족문제」이후 스탈린의 가장 중요한 이론저작이 되었다.</p>
구 적색교수원		<p>부하린이 이끌던 적색교수단의 연구소. “부자가 되시오”라는 구호로 우파의 중심에 선 부하린이즘의 산실로 부농사회주의등은 많은 농업국가의 혁명과정에서 논쟁을 일으켰다. 당대 중국에서도 원테전등의 삼농주의에서 부하린이즘의 잔영은 지속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하린이즘은 소련사회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었다.</p>
외교부		<p>‘모스크바 7자매’로 불리는 스탈린양식을 대표하는 건물 중 하나. 현 라브도프 외무장관의 안을 푸틴도 거의 이의 없이 따를 정도로 러시아외교의 실질적중심이다. 근처에 아르바트거리와 푸시킨박물관이 있다.</p>

<p>노동자회관. 코민테른7차 대회장</p>		<p>현 러시아연방의회(두마)옆 건물로 1935년 코민테른 7차대회가 이루어진 곳. 반혁명세력에 대한 숙청과 사회주의의 물질적 풍요가 공존하던 1935년 7월25일부터 한 달간 열렸다. 일본공산당의 노사카 산조, 베트남공산당의 호치민을 비롯 전세계 513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당시 코민테른은 76개 공산당조직과 19개동정조직의 785,000명의 조직원이 있었다. 1945년 창설시 50개국에 불과했던 UN이전에 세계최대의 국제조직이었던 셈이다. 7차대회는 반파시즘투쟁과 통일전선정책의 획기적 전기가 되었다.</p>
<p>연방보안국 (구KGB)</p>		<p>연방보안국 앞 루비양카 광장은 1926-1990까지 제르젠스키광장이었던 것에서 드러나듯 FSB는 KGB가 전신이다. 1996년 FSB를 구KGB 5국(반체제인사담당)이 장악하는데, 당시 푸틴이 근무했다. 정치수용소 굴락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슬로베츠키의 돌이 광장 한켠에 있다. 사하로프, 솔제니친, 로이 메드베제프 등이 주도한 37년 대숙청설등은 구소련문서고가 개방된 뒤의 최근연구에 의하면 놀랍게도 왜곡된 선전선동에 불과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p>
<p>인민경제성과 박람회장 (베데엔하)</p>		<p>사회주의경제건설 전형만들기의 시도로 만들어진 박람회장. 이곳에서 선택된 혁신 모델은 소련 전역으로 전파되고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영웅이 되었다. 근처에 아크비두크 수도교와 1920년대 아방가르드 건축을 보존하고 있는 면방직노동자숙소가 있다.</p>
<p>국가경제계획위원회 (고스플란)</p>		<p>1921년 창설된 국가경제계획위원회는 1927년 1차 5개년계획시행이래 1933년 1차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1930년 전후 대공황의 수렁에 빠졌던 미국조차 이를 받아들였고, 한국도 이후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받아들였다. 국가경제계획개념을 통해 스탈린식사회주의 이념은 세계차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셈이다.</p>
<p>스타하노프 상</p>		<p>1935년 광부 알렉세이 스타하노프가 작업과정혁신을 통해 하루 노동일 동안 정상적 채굴량보다 무려 14배나 많은 채굴량을 기록한 것에 자극받아 경제 전 부문에서 스타하노프운동이 조직된다. 스탈린은 “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대신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구호로 바꾼다. 이로서 ‘소비에트형 인간’이 사회주의 건설의 핵심이 된 것이다.</p>
<p>수하료프카 시장터</p>		<p>혁명 직후 레닌의 공산주의 정책의 걸림돌로 인식된 자유시장의 철폐가 신경제정책으로 선회할 때까지 진행된다. 이때 마지막으로 폐쇄한 자유시장이 수하료프카 시장이다. 이는 전시공산주의정책에서 신경제정책을 거치며 사회주의사업정책의 핵심 고민을 던져주었다.</p>
<p>농업인민위원회</p>		<p>레닌이즘과 프로쓰끼즘의 핵심논쟁 중 하나는 농업문제였다. 또한 부하린의 부농우선 정책도 엄청난 논쟁을 초래한 문제였다. 향후 종속이론의 핵심논리인 장기파동이론을 제공한 콘트라티예프 역시 농업국 쟈플란에서 활동하다 숙청되었다. 각국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경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련 농업논쟁은 여전히 유효한 논쟁이다.</p>

코민테른		<p>현 러시아국립사회대학교(РГСУ). 나찌시대 칼 슈미트는 국제연맹을 비판하며 진정한 초국가기구는 오직 코민테른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1920년 7월 코민테른 식당에서 레닌 바로 옆자리에 앉은 한명의 한국인이 사진에 포착되었다. 박진순. 임시정부국무총리 이동휘의 비서였다. 2차 코민테른대회에서 레닌이 발표한 '민족 식민지테제'의 공동토론자였다. 코민테른과의 관계를 지우고 한국독립운동사의 완전한 모습을 복원하긴 불가능하다.</p>
레닌대학		<p>현 금융대학. 스탈린대학이 동방혁명가들을 양성한데 비해 레닌대학은 서구의 혁명가를 양성하는 기관이었다. 유고슬라비아의 혁명가 티토 역시 이 곳에서 교육받았다. 부하린등 1급이론가들이 교수진으로 배치되었다.</p>
전승기념관		<p>러시아들에게 10월혁명보다 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현대사의 사건이 2차대전 전승이다. 파시즘의 발호에도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았던 영국, 프랑스가 독일에 참패한데 비해 소련이 히틀러를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 동력은 스탈린이 영도한 국가사회주의권력이었다. 현재의 스탈린에 대한 호불호와는 별개로 이는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독일 스파이들이라는 수모 속에 10월혁명을 성취한 혁명가들은 바로 그 혁명을 무기로 재차 발호한 파시즘을 완전히 절멸시켰다.</p>
김규면 묘		<p>노보데비치수도원 공동묘지에 안장된 김규면장군의 묘. 모스크바는 슈미아츠키가 후원하는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의 세력이 압도했으나 국가공동묘지에 안장된 인사는 역설적이게도 상해파고려공산당원의 2인자인 김규면이다.</p>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p>맑스경제학은 루빈으로부터 시작된 가치전형논쟁, 콘트라티예프의 장기파동이론등으로 러시아내부에서 가장 강력한 반대파들로부터 시달려야했다. 이같은 혼란을 정리하고 소비에트정치경제학의 중심을 잡은 것은 바르가(Eugen Varga)경제학이었다. 바르가가 주도한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에서 생산하는 경제이론과 통계자료를 스탈린은 가장 신뢰했다. 일반의 선입견과는 달리 바르가연구소의 역사적 기록은 권력으로부터 거의 독립적인 연구를 진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다.</p>
레닌대로		<p>모스크바시의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중의 하나가 레닌대로이다. 레닌과 크롭스카야 부부상, 전연방중앙위원회 본부, 소련과학아카데미와 KGB직원숙소등이 밀집되어 있다.</p>
주러조선공사관		<p>대한제국은 쾨니히스브루크와 모스크바 두 군데에 공사관을 두고 있었다. 1905년 일제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하고난 후 이 곳 공사관은 폐쇄되었다.</p>
폼소몰스카야역		<p>모스크바에서 가장 화려한 역. 건축가들은 콤소몰스카야역에 모스크바의 관문이자 소비에트 연방 수도의 위용과 힘을 방문객들에게 과시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건축비를 아끼지 않은 결과 이 역은 스탈린 양식과 거대화의 극치를 보여주는 곳이 됐다. 색유리와 보석으로 만든 8개의 모자이크 판넬화로 장식된 천장은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가장 높다.</p>